韓國心理學會誌: 發達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Developmental
1998. Vol. 11, No. 2, 121-133.

애착에 대한 어머니의 내적 작동모델, 남편에 대한 애착 및 자녀의 생활만족

장 휘 숙
충남대학교

이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이 남편에 대한 애착과 자녀의 생활만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단일문항으로 구성된 Hazan과 Shaver(1987)의 3범주 척도에 의해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이 분류되었으며 IPPA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남편에 대한 애착정도가 측정될 수 있었다. 그에 덧붙여 어머니의 애착역사로서 아동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사용한 양육방식을 측정하였고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에 해당하는 자기존중감, 희망 및 우울을 측정하여 내적 작동모델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안정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어머니들은 남편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나타내었고 더 높은 수준의 생활만족을 경험하는 자녀를 갖는 것은 물론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개인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남편에 대해 높은 애착을 형성한 어머니의 아동들이 더 높은 생활만족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같은 결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1 애착연구의 개척자로서 애착이론을 확립한 Bowlby(1969)는 영아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경과와 함께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념으로 재조직된다고 주장하고 이 재조직화된 기대를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라고 명명하였다. 다시 말하면 인생초기의 영아와 양육자 사이의 애착관계는 영아에 대한 양육자의 반응성과 영아가 양육자를 필요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도를 바탕으로 자아와 세계에 대한 신념으로 재구성됨으로써 내적 작동모델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Bowlby에 의하면,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이후 애착체계의 활성화를 지배하는 역할을 함으로 전생애동안의 관계형성 방식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같은 Bowlby의 주장은 애착의 영향이 아동기를 거쳐 청년기, 성인기까지 계속되는 것은 물론 애착이 개인의 결혼생활과 자녀양육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는 개인의 애착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전형적인 맥락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내나 남편이 지니

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가족관계의 역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남편과의 관계형성 방식은 물론 아동양육 방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내적 작동모델의 질적 특성에 따라 남편에 대한 애착과 자녀의 생활만족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경험적으로 연구한 Ainsworth와 Blehar, Waters 그리고 Wall(1978)은 낯선 상황(Strange Situation)이라는 실험실 절차를 개발하여 질적으로 상이한 세가지 애착양식(안정된, 회피적, 불안한/양가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Bowlby의 모델에 의하면, 이와같은 세가지 애착양식은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와 타인에 대해 상이한 신념을 형성하게 할 것이므로 질적으로 각기 다른 내적 작동모델로 구조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영아기에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개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지각하는 동시에 타인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고 접근가능하다는 신념에 기초한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한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지각과 함께 타인과도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애착을 형성한 개인들은 자신을 가치없고 무능한 사람으로 지각하고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되고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타인과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더욱이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개인의 정서조절 방식을 결정한다는 증거가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애착과 정서조절과의 관계를 연구한 Kobak과 Sceery(1988)는 Main과 Goldwin(1985)에 의해 개발된 성인애착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을 사용하여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분류하고 상이한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정서조절 방식에서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AAI로써 분류된 자율적-안정된, 거부적 그리고 몰두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Ainsworth 등(1978)이 분류한 안정된, 회피적 그리고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과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명칭만 상이할 뿐 실제적으로는 자율적-안정된 내적 작동모델은 안정된 애착양식과, 거부적 내적 작동모델은 회피적 애착양식과 그리고 몰두된 내적 작동모델은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과 동일한 애착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 증거로서 Main과 Goldwin은 AAI를 사용하여 어머니들이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측정한 결과, 어머니들이 그들 자신의 애착경험에 대한 사고와 기억을 조직하는 방식이 아동들이 낯선상황 절차에서 그들의 행동을 조직하는 방식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어머니의 내적 작동모델과 아동의 애착양식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한 바 있다.

Kobak과 Sceery에 의하면, 안정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대학생들은 친구들에 의해 더 많은 자아탄력성를 지니고 있고 더 적은 수준의 불안과 적개심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스스로도 가족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고 더 적은 괴로움을 경험한다고 지각하였다. 대조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집단 중 거부적 내적 작동모델의 소유자들은 친구들에 의해 자아탄력성이 낮고 적대감의 수준은 높다는 평가를 받으며 스스로도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고 가족으로부터 더 적은 지원을 받는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몰두된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도 친구들에 의해 더 적은 자아탄력성과 더 높은 수준의 불안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스스로 높은 수준의 개인적 괴로움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거부적 집단보다는 그들의 가족을 더 지원적이라고 응답하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Kobak과 Sceery의 결과는 개인이 정서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이 활성화됨으로 애착은 정서조절을 지배하는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제시한다.

이와같이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의 질적특성은 내

적 작동모델의 형태로 계속되고 타인과의 관계형성 시에 그대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에 따라 상이한 대인관계 양식과 정서조절 방식이 활용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데이트 파트너의 선택이나 배우자 선택 및 낭만적 관계의 지속과 같은 관계형성과정 등이 자주 논의되었다. 그 중에서도 낭만적 사랑을 애착형성 과정으로 설명한 Hazan과 Shaver(1987)는 영아기에 양육자에 대해 형성한 애착의 질적 특성이 성인기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들은 단일문항의 범주척도를 제작하여 성인들이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분류하고(안정된, 회피적, 불안한/양가적) 낭만적 사랑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Hazan과 Shaver에 의하면, 안정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성인들은 신뢰나 우정과 같은 긍정적 정서에 기초된 사랑을 경험하는 반면, 안정되지 못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성인들은 정서적으로 변화가 심하고 질투심이 강하며 파트너에게 강박관념적으로 몰두하는 사랑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Hazan과 Shaver의 연구를 통하여 각 개인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과 상응하는 방식으로 이성을 사랑한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Feeny와 Noller(1990)에 의해서도 반복됨으로써 애착이론이 성인의 낭만적 사랑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이론적 모델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사랑을 경험하는 방식과 함께 데이트 파트너를 선택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 Collins와 Read(1990)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과 사랑의 유형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밝혀 Hazan과 Shaver의 결과를 확인했을 뿐아니라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에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파트너가 된다는 것을 밝혔다. 개인이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기대나 표상에 해당함으로 곧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이 데이트 파트너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신과 타인에 대해 서로 유사한 신념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것으로 가정된다. Collins와 Read에 의하면, 데이트 파트너들은 서로 유사한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유사한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 예로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남성과 여성은 버림받거나 사랑받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동일한 유형의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파트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워지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파트너를 선택함으로써 그 나름대로의 조화를 이루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다시 말하면 성인들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에 따라 파트너를 선택하는 동시에 파트너와의 관계형성 방식도 그들의 내적 작동모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낭만적 관계에 미치는 애착의 영향을 연구한 Simpson(1990)도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에 따라 낭만적 관계를 지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증거로서 안정된 내적 작동모델의 소유자들은 낭만적 관계에서 더 많이 상호의존하고 전념하며 상대편을 신뢰할 뿐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만족스럽다고 지각하였다. 그러나 회피적 내적 작동모델과 불안한/양가적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를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6개월 후의 추수면접을 통하여 회피적 남성들이 관계해체 후 더 적은 정서적 괴로움을 경험한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개인의 애착양식은 질적으로 상이한 낭만적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질적으로 상이한 정서를 경험하도록 한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었다.

또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자녀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물림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Benoit와 Parker(1994)는 AAI를 사용하여 임신한 어머니들과 어머니의 어머니들(영아의 외할머니)이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측정하고 분만후 11개월이 되었을 때 낯선상황(Strange Situation) 절차를 사용하여 영아의 애착양식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어머니들의 AAI 분류는 영아의 낯선상황 분류의 81%를 예언하였고 할머니의 AAI 분류의 75%를 예언함으로써 애착양식이 외할머니-어머니-영아의 3세대에 걸쳐 계속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애착의 대물림 현상은 정신과 병원에 입원한 청소년들과 그들의 어머니를 연구한 Rosenstein과 Horowitz(1996)에 의해서도 확인될 수 있었다. 연구자들은 임상적 문제를 지니고 있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안정되지 못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었고 그들의 어머니들도 동일하게 안정되지 못한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다고 밝혀 불안정한 애착도 세대를 통하여 전달된다고 제안하였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추론해보면, 영아기동안 양육자에 대해 형성한 개인의 애착양식은 내적 작동모델의 형태로 성인기까지 계속되고 그것은 배우자와의 관계나 자녀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특히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는 때로 갈등적 상황을 포함할 뿐아니라 자주 인내가 요구되는 전형적인 애착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의 정서조절 방식을 결정하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가족관계의 지속과 갈등 및 가족구성원들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물론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양방적 관계이긴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남편에 대한 애착정도와 아동양육방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에 덧붙여 상이한 유형의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상이한 애착역사를 보고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이 연구에서는 내적 작동모델의 계속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Hazan과 Shaver의 3범주 척도를 사용하여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측정하고 애착역사로서 어머니가 경험한 부모의 양육방식을 질문하여 애착역사와 애착양식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어머니의 안정된, 회피적 그리고 불안한/양가적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이 남편에 대한 애착과 자녀가 지각하는 생활만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위에 개관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가정해보면, 안정된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여성들은 안정되지 못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여성들보다 더 바람직한 개인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남편에 대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애착을 형성하며 그들의 자녀들은 더 많은 생활만족을 경험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적으로 이 연구를 통하여 애착이 가족관계의 역동성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성개념이라는 단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대전시에 소재한 3개 초등학교의 6학년 아동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이 연구대상자로 표집되었다. 716매의 질문지가 아동과 어머니 각각에게 실시되었으나 어머니용 검사는 아동을 통하여 어머니에게 전달되고 회수되었기 때문에 회수의 어려움이 있었다. 어머니용 질문지의 회수율은 67% 정도였고 어머니와 아동 모두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거나 응답을 누락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인 분석에 사용된 연구대상자는 아동과 어머니 각각 455명씩이었다. 어머니용 질문지의 표지에는 응답요령과 정직한 응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타당성있는 응답을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아동용 검사는 담임교사에 의해 수업시간에 실시되었으며 실시시간은 10분정도 소요되었다. 어머니들의 연령은 31세에서 59세까지 분포하였고 평균연령은 38.52세(SD=2.91)였으며 아동의 평균연령은 11.91세(SD=0.53)였다.

2. 척도

1)애착척도

Hazan과 Shaver의 애착척도가 사용되었다. 안정된, 회피적 그리고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 각각을 설명하는 문장을 제시하고 자신과 가장 잘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애착양식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2)애착역사의 측정

아동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사용한 양육방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Hazan과 Shaver(1986)의 부모양육에 대한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따뜻한/반응적, 냉담한/거부적 그리고 양가적/일관성 없는의 세가지 양육유형, 각각을 설명하는 문장을 주고 어머니 자신이 경험한 양육유형과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유형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3)남편에 대한 애착정도 측정

남편에 대한 애착은 Paterson과 Pryor 및 Field(1995)가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동년배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활용하였다. 결혼한 여성들에게 남편도 중요한 애착대상이므로 예비연구를 통하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년배라는 단어 대신에 남편이라는 단어를 삽입하여 사용하여도 무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IPPA에서와 동일하게 남편에 대한 애착질문지도 25개 문항의 5점 Likert형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의 Cronbach α계수는 .90이었다.

4)어머니용 자기존중감 검사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Rosenberg(1965)의 자기존중감 검사가 사용되었다.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 검사는 개인의 전체적 자기존중감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신뢰도가 보고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의 Cronbach α계수는 .73이었다.

5)희망척도

Snyder 등(1991)에 의해 제작된 희망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검사는 목표지향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지요인 문항과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을 계획세울 수 있는 방법요인 문항 그리고 방해과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 모두 4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의지요인의 Cronbach α계수는 .64 그리고 방법요인의 Cronbach α계수는 .71이었으며 희망척도 전체의 Cronbach α계수는 .75였다.

6)어머니용 우울척도

Beck의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가 사용되었다. 21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4지선다형의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지난 주부터 오늘까지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항 하나를 고르도록 되어있는 이 검사는, 실시하기 간편하고 높은 타당도를 지니고 있어 다른 우울척도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의 Cronbach α계수는 .90이었다.

7)아동용 생활만족척도

Huebner(1994)의 아동용 생활만족척도가 사용되었다. 가족요인, 친구요인, 학교요인, 생활환경요인 및 자기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검사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아동들에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중다차원검사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까지 4점척도상에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전체적 생활만족점수와 5개의 각 하위영역별 만족점수도 계산될 수 있다. 높은 내적 일관성과 수렴 타당도 및 변별 타당도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의 Cronbach α계수는 다음과 같다: 전체 생활만족척도 .85, 가족요인 .81, 친구요인 .84, 학교요인 .87, 생활환경요인 .81, 그리고 자기요인은 .81이었다.

3. 자료처리

애착의 특성상 응답비율이 바람직한 애착역사나

애착유형에 과도하게 치우치게 되어 있어 자료분석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기대빈도가 5이하인 cell이 존재하여 χ^2 는 신뢰롭지 않음으로 애착역사와 애착의 작동모델에 대한 응답비율을 바탕으로 비교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애착양식과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들의 관계는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의 선택비율이 지나치게 낮았으나 Hartley의 F_{max} 검증결과 동분산의 가정이 충족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점수를 사용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1. 어머니들이 경험한 애착역사와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에 대한 응답비율 및 그 양자의 관계

애착역사로서 어머니들이 보고한 그들의 어머니들의 양육방식은 따뜻한/반응적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3.4% (243명), 냉담한/거부적이었다는 응답은 7.7%(35명) 그리고 양가적/일관성 없는의 응답은 38.9%(177명)로 나타났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역사도 어머니에 대한 애착역사와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어 따뜻한/반응적(48.1%)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양가적/일관성 없는(38.2%)이었으며 냉담한/거부적(13.6%)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가장 낮았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방식에 대한 응답을 비교해보면, 따뜻한/반응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역사에서 더 높고 냉담한/거부적이라는 응답비율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역사에서 더 높았다.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장휘숙(1997a)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역사의 경우, 따뜻한/반응적 69.27%, 냉담한/거부적 0.98% 그리고 양가적/일관성없는 29.76%의 응답비율을 나타내었고 아버지에 대한 애착역사에서는 37.07%, 4.39% 그리고 58.51%의 비율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하면 대학생들은 이 연구에 포함된 어머니들보다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 양자에 대해 냉담한/거부적 양육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더 낮았으며 특히 아버지의 양육방식에 있어서는 양가적/일관성없는 응답이 따뜻한/반응적이었다는 응답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애착역사에 대한 반응양상에서 대학생과 어머니들 사이에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어머니들이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에 해당하는 현재의 애착양식에 대한 응답비율은 안정된 작동모델을 선택한 비율(65.1%, 296명)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회피적 작동모델이었으며(29.9%, 136명) 불안한/양가적 작동모델의 선택비율(5.1%, 23명)이 가장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같은 결과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장휘숙(1997a)의 연구에서의 안정된 60%, 회피적 28.29% 그리고 불안한/양가적 작동모델을 선택한 11.71%

<표-1> 어머니들이 응답한 그들의 어머니 및 아버지와의 애착역사와 애착유형의 사례수

(괄호안은 백분율)

애착역사		안정된	회피적	불안한/양가적	전체
어머니와의	따뜻한/반응적	172(37.80)	64(14.06)	7(1.54)	243(53.4)
애착역사	냉담한/거부적	15(3.30)	16(3.52)	4(0.87)	35(7.69)
	양가적/일관성없는	109(23.95)	56(12.31)	12(2.64)	177(38.90)
아버지와의	따뜻한/반응적	160(35.17)	51(11.2)	8(1.76)	219(48.13)
애착역사	냉담한/거부적	36(7.91)	25(5.49)	1(0.23)	62(13.63)
	양가적/일관성없는	100(21.97)	60(13.19)	14(3.08)	174(38.24)
	전 체	296(65.1)	136(29.9)	23(5.1)	455(100)

및 Hazan과 Shaver(1987)의 연구에서 안정된 56%, 회피적 25% 그리고 불안한/양가적 19%의 선택비율과 비교해볼 때, 전체적 패턴은 유사하나 수치상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표1>은 애착역사와 애착유형의 선택비율을 함께 제시해준다.

<표1>에 의하면, 안정된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어머니들이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역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따뜻한/반응적 양육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불안한/양가적 내적 작동모델에서도 양가적/일관성없는 양육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아, 애착역사와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회피적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어머니들이 보고한 냉담한/거부적 양육의 경험비율이 어머니와 아버지 양자에서 지나치게 낮아 애착역사와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해석을 어렵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냉담한/거부적 양육이나 양가적/일관성없는 양육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회피적 혹은 불안한/양가적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양육을 경험한 비율보다 현저히 낮아 애착역사와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서로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의 질적 특성은 내적 작동모델의 형태로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2. 어머니의 애착양식과 그들의 개인적 특성과의 관계

어머니가 안정된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가 아니면 회피적 혹은 불안한/양가적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어머니의 자기존중감과 희망 그리고 우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후속적으로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2>와 같다.

<표2>에 의하면, 어머니의 자기존중감과 희망 및 우울에서 모두 유의한 집단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후분석으로 Bonferroni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기존중감에서는 1집단이 2집단 및 3집단 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어 안정된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어머니들이 유의하게 더 높은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희망요인에 대해서도 Bonferroni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 희망점수와 방법요인 및 의지요인 모두에서 1집단이 2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어 안정된 집단이 두가지 하위척도에서는 물론 전체적 희망척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적으로 우울척도에서는 사후분석(Bonferroni) 결과, 1집단이 2집단이나 3집단보다 가장 낮은 점수를 얻어 안정된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어머니들이 회피적 혹은 불안한/양가적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어머니들보다 더 낮은 우울경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을 측정하는 모든 척도에서 2집단과 3집단의 특성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았을 뿐아니라 희망척도에서는 1집단과 3집단이 유의한 집단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집단이 일관성있게 자기존중감과 희망척도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그리고 우울척도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얻어 안정된 내적 작

<표-2> 어머니의 애착양식에 따른 각 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변량분석 결과

		안정된 1집단	회피적 2집단	불안한/양가적 3집단	F값	사후분석
자아존중감	M	27.16	25.28	24.71	10.0	1>2,3
	SD	4.17	4.26	4.39	***	
희망	M	25.98	24.35	24.95	7.38	1>2
	SD	4.00	4.15	5.18	***	
방법요인	M	11.56	10.65	10.82	8.90	1>2
	SD	2.06	2.11	2.74	***	
의지요인	M	11.69	11.13	11.40	3.85	1>2
	SD	1.91	2.01	2.48	*	
우울	M	8.92	11.75	14.65	10.61	2,3>1
	SD	7.15	8.25	10.35	***	

***<.0001, **<.001, *<.05 이하 동일함

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어머니들이 안정되지 못한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어머니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기존중감과 희망을 지니고 더 낮은 수준의 우울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3.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애착양식과 남편에 대한 애착정도의 관계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에 따라 남편에 대한 애착점수를 일원변량분석한 결과 $F(2,449)=4.52$, $P<.01$로서 유의한 집단가 있었다. 사후분석으로 Bonferroni 검증을 실시한 결과, 안정된 집단(M=90.57, SD=14.59)이 회피적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피적 집단(M=86.14, SD=14.77)과 불안한/양가적 집단(M=86.34, SD=18.09) 사이에는 유의한 집단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안정된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어머니들의 점수가 일관성있게 높아 안정된 집단이 안정되지 못한 집단보다 남편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4. 어머니의 애착양식과 아동이 지각하는 생활만족과의 관계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생활만족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하였다. <표3>과 같이 전체 생활만족점수와 하위요인 중 학교요인에서 유의한 집단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으로 duncan 검증을 실시한 결과, 1집단이 3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어 안정된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어머니의 아동들이 전체 생활만족은 물론 하위요인 중 학교요인에서 불안한/양가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어머니의 아동들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얻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안한/양가적 집단과 회피적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안정된 집단이 전체 생활만족 점수와 5개의 하위요인 점수에서 일관성있게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안정된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어머니의 아동들은 생활에서 더 큰 만족을 느끼고 특히 학교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니는 경향이 있음은 물론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만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였다.

<표3> 어머니의 애착양식에 따른 아동의 생활만족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변량분석 결과

		안정된 (1집단)	회피적 (2집단)	불안한/양가적 (3집단)	F값	사후분석
전체 생활만족	M	119.75	116.63	111.56	2.86*	1>3
	SD	19.39	18.30	15.84		
가족요인	M	21.11	20.81	21.00		
	SD	4.68	4.33	3.47		
친구요인	M	28.57	28.36	27.00		
	SD	5.49	5.08	4.22		
학교요인	M	24.76	23.82	22.18	3.50*	1>3
	SD	5.31	5.05	4.39		
생활환경 요인	M	26.35	25.33	24.47		
	SD	5.95	5.61	5.40		
자기요인	M	19.51	18.88	17.54		
	SD	4.42	4.62	4.07		

5. 어머니의 남편에 대한 애착정도와 아동의 생활만족과의 관계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물론 어머니의 남편에 대한 애착정도에 따라서도 아동의 생활만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남편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정도를 상, 중, 하집단으로 나누고 아동의 생활만족에서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변량분석이 실시되었다.

<표4>는 남편에 대한 애착정도에 따라 아동의 전체 생활만족점수와 가족요인 및 생활요인에서 유의한 집단차이를 보여준다. 사후분석으로 Bonferroni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생활만족점수와 가족요인점수 및 생활환경요인 점수 모두에서

<표4> 어머니의 남편에 대한 애착정도에 따른 아동의 생활만족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변량분석결과

		남편에 대한 애착상	남편에 대한 애착중	남편에 대한 애착하	F값	사후 분석
전체	M	121.48	117.43	115.31	4.09**	1>3
생활만족	SD	19.53	18.77	17.91		
가족요인	M	21.66	20.87	20.35	2.98*	1>3
	SD	4.95	4.30	4.11		
친구요인	M	28.85	28.40	27.75	1.49	
	SD	5.66	5.18	5.06		
학교요인	M	25.07	24.05	23.72	2.61	
	SD	5.20	5.32	5.11		
생활환경	M	26.60	25.97	24.93	2.97*	1>3
요인	SD	5.93	5.51	5.71		
자기요인	M	19.75	19.12	18.88	1.47	
	SD	4.49	4.55	4.33		

남편에 대한 애착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집단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남편에 대한 애착 중집단은 전체 생활만족점수와 다섯 개의 모든 하위요인 점수들에서 일관성있게 상집단보다는 낮고 하집단보다는 높은 점수를 얻어 어머니가 남편에 대해 높은 애착을 형성할수록 아동은 더 많은 생활만족을 느끼고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며 현재의 생활환경을 좋아할 뿐아니라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학교와 친구를 좋아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논의

이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이 남편에 대한 애착과 자녀의 생활만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Hazan과 Shaver(1987)의 애착척도를 사용하여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측정한 후 남편에 대한 애착정도와 아동이 지각하는 생활만족과의 관계를 일원변량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그에 앞서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과 어머니들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용한 양육방식에 해당하는 애착역사와의 관계가 검토되었고 어머니의 내적 작동모델과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인 자기존중감, 희망 및 우울과의 관계도 함께 검토되었다. 연구결과, 안정된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어머니들은 안정되지 못한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어머니들보다 더 높은 자기존중감과 희망을 지니고 있었고 더 낮은 수준의 우울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안정된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여성들은 남편에 대해서도 높은 애착을 형성하고 높은 생활만족을 경험하는 아동의 어머니들이었다. 동시에 남편에 대해 높은 애착을 형성한 어머니의 아동들이 더 높은 생활만족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과 함께 어머니의 남편에 대한 애착정도가 아동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우선 애착역사에 대한 응답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방식에 대한 반응패턴은 서로 유사하였으나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어머니들은 그들이 경험한 어머니의 양육방식보다 아버지의 양육방식을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한국의 아버지들이 어머니들보다 자녀양육에 가담하는 시간도 적을 뿐아니라 자녀들에게 더 엄격한 데 기인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장휘숙(1997a)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해 냉담한/거부적 애착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응답한 어머니들의 비율이 대학생들이 응답한 비율보다 유의하게 더 높아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있는 설명은 이 연구에 포함된 30대 후반의 여성들이 20대의 대학생들보다 그들의 애착역사를 더 솔직하게 응답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와같은 가정의 근거는 대학생들이 냉담한/거부적 애착역사를 거의 보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피적 내적

작동모델을 보고한 비율이 어머니들과 비슷하고 양가적/일관성없는 내적 작동모델을 보고한 비율은 어머니들보다 더 높다는 데 있다. Bowlby(1969)에 의하면, 각 개인은 부모와의 애착역사를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서 나타난 애착역사와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 사이의 불일치는 솔직하지 못한 반응에 기인될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어머니들의 애착역사에 대한 반응이 대학생들보다 더 부정적인 데도 불구하고, 안정된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학생들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결과는 Kobak과 Hazan(1991)의 주장대로, 결혼생활을 통하여 배우자의 행동에 따라 인지구조의 조절 메커니즘이 활성화된 결과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혼생활과 같은 관계형성 맥락이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에서의 변화를 가져오는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한 Hazan과 Hutt(1990)는 대략 25%의 성인들이 그들의 성인기동안 낭만적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에서 변화를 경험한다고 밝히고 그 변화는 불안정한 애착에서 안정된 애착의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동시에 이 연구에 포함된 어머니들이 Hazan과 Shaver(1987)가 연구한 비슷한 연령(36세)의 미국 성인들보다 더 높은 비율의 안정된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고 불안한/양가적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어머니들의 비율은 미국 성인들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미국과 비교하여 이혼율이 낮고 결혼생활의 평균길이가 더 길 뿐아니라 남성우위의 가치관이 존속하고 있어, 여성들이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할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이와같은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일어난 결과로, 한국의 어머니들이 미국 성인들보다 더 높은 비율의 안정된 애착을 지닐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나타난 애착역사와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 사이의 낮은 일치율은 영아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전생애동안 계속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형의 질문문항과 함께 Main과 Goldwin이 개발한 성인애착면접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보다 더 타당성 있는 애착의 질적 특성이 측정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애착역사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과 일치되게 안정된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어머니들이 더 높은 자기존중감(장휘숙, 1997a, 1997b; Paterson 등, 1995; MCCormick & Kennedy, 1994; Collins & Read, 1990;)과 희망(장휘숙, 1998)을 지니고 있고 더 낮은 수준의 우울(Kobak 등, 1991)을 나타낸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었다. 또한 이 연구의 주된 문제로서 안정된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어머니들이 남편에 대해서도 더 높은 애착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아동들도 더 높은 수준의 생활만족을 경험한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었다. Simpson(1990)의 연구에서 밝혀진 대로, 안정된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어머니들이 파트너에 대해 더 큰 상호의존과 더 큰 전념, 더 큰 신뢰 및 더 큰 만족을 느끼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들이 남편에 대해서도 더 높은 애착을 형성한다는 것은 타당한 결과일 것이다.

또한 안정된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어머니들이 더 큰 생활만족을 느끼는 아동을 갖는다는 것은 안정된 애착이 어머니의 정서를 보다 더 바람직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할 것이므로(Kobak & Sceery, 1988) 긴장상황에서의 어머니의 행동이나 반응이 아동을 지나치게 불안하거나 불편하게 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아동이 경험하는 생활만족은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과 함께 어머니의 남편에 대

한 애착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남편에 대해 높은 애착을 지니고 있을 때 어머니의 생활만족은 더 커질 것이고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태도는 보다 더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므로 아동들의 만족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남편에 대한 애착이 클수록 아동의 생활만족점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문제는 남편에 대한 애착이나 아동의 생활만족에서 비록 통계적 의미에서 유의한 F값이 산출되기는 하였지만, 그 값이 크지 않을 뿐아니라 생활만족척도의 경우 5개의 하위요인 중 학교요인에서만 유의한 집단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아마도 남편-아내관계나 부모-자녀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적이며 이원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에 의해서만 남편에 대한 애착이나 아동의 생활만족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남편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 특성이나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물론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 양자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다른 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도 아동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이 남편에 대한 애착은 물론 자녀의 생활만족에도 영향을 준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애착이 가족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구성개념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찍이 Bowlby(1980)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개인의 성격발달을 인도한다고 주장하였고 Kobak과 Sceery(1988)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이 개인의 정서조절방식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의 가족은 깊은 개인적 정서를 교류하는 역동적 체계이므로 가족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성격이나 정서조절 방식은 가족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부부의 관계형성 방식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것은 다시 자녀와의 관계는 물론 다른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역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애착이론은 가족관계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이론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애착이론으로 가족관계를 설명할 수 있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아동용 애착척도를 개발하는 일일 것이다. 이 연구에 포함된 아동들은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로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애착양식이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영아의 애착양식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적 연구방법으로 낯선상황(Strange Situation) 절차가 이미 개발되어 있고 유아용 애착척도로서 Q분류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어머니와 아버지 및 친구에 대한 애착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IPPA가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동기의 아동을 위한 애착척도는 전무한 상태에 있으므로 아동용 애착척도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다. 아동용 애착척도가 개발될 수 있다면, 아동과 어머니 및 아동과 아버지의 관계역동을 검토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장휘숙(1997a). 성인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Vol. 10,** No. 2, 123-138.

장휘숙(1997b). 청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한국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제 4권 1호,** 88-106.

장휘숙(1998). 애착과 희망의 관계에서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의 중재역할. 한국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Vol. 4, No. 2, 117-137.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Benoit, D., & Parker, K. C. H. (1994). Stability and transmission of attachment across three generations. *Child Development, 65,* 1444-1456.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New York: Basic Books.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8,* No. 4, 644-663.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s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8,* No. 2, 281-291.

Hazan, C., & Hutt, M. J. (1990). *Continuity and change in inner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Presented at the Fifth Internation Conference on Personal Relationships, Oxford, England.

Hazan, C., & Shaver, P. (1986). *Parental caregiving style questionnaire.* Unpublished questionnaire.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2,* No. 3, 511-524.

Huebner., H. S. (1994). Prelimina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scale for children. *Psychological Assessment, Vol. 6,* No. 2, 149-158.

Kobak, R. R., & Hazan, C. (1991). Attachment in marriage: Effects of security and accuracy of working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0,* No. 6, 861-869.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Kobak, R. R., Sudler, N., & Gamble, W. (1991). Attachment and depressive symtoms during adolescence : A developmental pathways anslysi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 461-474.

Main, M., & Goldwin, R. (1985). *Adult attachment classification system.*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McCormick, C. B., & Kennedy, J. H. (1994).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3,* No. 1, 1-18.

Paterson, J. E., Pryor, J., & Field, J. (1995). Adolescent attachment to parents and friends in relation to asp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4,* No. 3, 365-376.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Rosenstein, D. S., & Horowitz, H. A. (1996). Adolescent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4,* No. 2, 244-253.

Simpson, J. A. (1990).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s o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 No. 5, 971-980.

Snyder, C. R., Harris, C., Anderson, J. R., Holleran, S. A., Irving, L. M. Sigmon, S. T., Yoshinobu, L, Gibb, J., Langelle, C., & Harney. P. (1991).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d individual-differences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0,* No. 4, 570-585.

韓國心理學會誌: 發達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Developmental
1998. Vol. 11, No. 2, 121-133.

Mothers' Internal Working Model of Attachment, the Attachment to their Husbands and their Children's life Satisfaction

Hwee Sook, J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mothers' internal working model of attachment influences the attachment to their husbands and their children's life satisfaction or not. Mothers' internal working model was classified by three categories of the Attachment Style Measure of Hazan and Shaver, and attachment to their husbands was measured by IPPA. In addition, as an attachment history, Parental Caregiving Style of the parents of the mothers and mothers' personal characteristics(self-esteem, hope, depression) were also measured. It was revealed that mothers with secure attachment working model showed more favorable attachment to their husbands than those with insecure one. Also they had more favorable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children with a higher level of life satisfaction than their counterparts.